

주제회의  
가사노동의 젠더 불평등

돌봄·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인정과  
성평등 효과까지 동반되는  
가사 수당 지급을 바라며

장세레나  
[광주여성회 대표]

무한 반복되지만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허드렛일로 간주되던 가사노동과 공적 노동시장 가사노동자들의 저임금화로 이어지는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이 급진적이고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가사노동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존중 문화와 가사노동분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상징성을 갖는 정책’으로 도입하는 가사수당제도가 성평등 효과까지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고민과 질문을 적어봅니다.

먼저, 가사 수당 제도의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사회적 효과는 성별에 따른 가사전담자 구도를 해소하고, 구성원의 적절한 가사노동분담을 통해 가정 내의 성평등이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가정 내 무급 가사노동이 한 성별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여성=가사전담자’라는 구도가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는 현상 속에서 ‘가사전담자’에게 수당을 제시하는 부분이 자칫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지는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가사 수당 우선 지급대상이 여러 수당제도에서 소외돼있는 중장년층인 40~5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부모 또는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사 수행자(남성 포함)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가정 내 돌봄 노동은 가사노동의 가중을 가져옵니다만,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수당제도가 결국은 돌봄 노동까지를 수반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아실현 및 가정경제 등 다양한 이유로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층인 40~50대 특성상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이 얼마나 될지, 실효성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가구의 형태와 연령 등에 따라 가사 수당 제도와 함께 가사노동 서비스 제공을 병행하는 방식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적은 금액의 가사 수당보다 가사 서비스 제공이 실효성 있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돌봄 노동과 가사노동의 사회적 임금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임금노동 영역과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사 수당 월지급액 결정 기준입니다. ‘가사 노동 및 가사 수당에 관한 광주 시민 인식조사’에서 가사 수당 적정 지급액이 월 15만 원 이하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40.8%) 나왔는데 월 10만 원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위 조사에서 1인 가구도 지급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50%가 넘게 나왔습니다.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현금성 수당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집단은 1인 가구도 있습니다. 대상선정과 월지급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가사 수당 도입 시 기대효과가 높는데 비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전국 최초로 가사 수당 제도를 도입했다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찌 됐건 ‘가사 수당’ 제도 도입을 구상하고 검토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오늘의 이 걸음이 가사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인정 및 가사노동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위한 실효성 있고 다양한 제도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이기를 바랍니다.